

우리도 대통령기념도서관을 만들자

최 정 태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얼마전 국내 주요 일간지에서는 1991년 걸프전을 지휘했던 조지 부시(George Bush) 전 미국대통령 기념도서관이 11월 6일(현지시간) 마침내 문을 열어 부시의 공적생활들을 기념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된 방대한 자료제공 및 일반시민들의 도서관으로 봉사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중앙·조선일보; 97. 11. 6~7)

이 기념도서관은 텍사스주 칼리지 스테이션에 있는 텍사스 A&M대학에 자리잡고 있으며, 개관 행사장에는 알츠하이머 병 때문에 사실상 거동이 불가능한 레이건을 대신, 부인 낸시여사가 참석할 것을 빼곤 생존해 있는 전, 현직 대통령 4명과 퍼스티 레이디 6명이 미국 역사상 드물게 한자리에 모였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축사에서 “미국은 위엄과 충성심을 가지고 조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부시대통령 같은 인물을 갖고 있었기에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고, 포드 전 대통령은 “부시는 일생을 사명 속에서 산 인물”이라며 “이젠 그의 사명이 완수됐다고 할 수 있다”고 축하했다.

나는 지난 여름방학동안 미국 텍사스에 있는 몇 대학을 다녀온 일이 있다. 여행 중에 자료도 수집하고 도서관을 보는 것이 내 직업인지라 부시대서관은 준공을 앞두고 있어 그 옆을 지나치기만 하고 대신에 존슨(Lyndon Baines Johnson)대통령 기념도서관을 둘러볼 기회를 가졌다. 그는 대통령 재직시 월남전에 한국군을 파병케 하고 한국을 두차례나 다녀간 일이 있어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인물이다.

그의 기념도서관은 부시대서관과 2시간 거리에 있는 텍사스의 주도(洲都)인 오스틴시의 텍사스대학(Univ. of Texas at Austin) 캠퍼스 내에 소개하고 있는데 정방형의 8층건물로 이루어져 밖에서 보면 마치 커다란 쌀뭉치를 세워놓은 것처럼 볼품이 없다. 그러나 안에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진다. 우선 1층 정문에 들어서면 최근 미국을 이끈 13명의 역대 대통령과 주요인물들이 15미터 길이의 동판벽화에 등을 새김으로 각인되어 있어서 그림을 가까이서 보면 추상화 같은데 적당한 거리에서 보면 입체감마저 느끼게 한다. 그리고 그림의 상단부에는 그와 관련된 4천만(forty million)페이지에 달하는 역사적 기록물(historical documents)이 붉은 색 파일상자에 4층으로 쌓여 기념관의 전면 모두를 장식하고 있다. 그리고 한쪽 홀에는 시청각을 이용한 대통령 재직시의 활동모습과 일대기를 시간에 맞춰 계속해서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양벽면에는 대통령과 영부인의 어릴적 모습에서부터 성장기와 결혼생활 등 모든 활동상황들을 커다란 사진에 담아 놓았다.

기념관 내부에는 사진뿐만 아니라 그가 재임시 대통령 전용차로 사용하던 1968년산 스트레치(Stretch)리무진과 헨리포드 2세가 기증했다는 가족용으로 쓰던 모델 1910 T형 포드자동차도 실물을 그대로 진열해두고 있다. 그리고 다른 방에는 미국 국민들이 간직하고 있던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집안의 가보(heirlooms)와 수제품(handcrafts)들을 가지런히 모아 전시하고 있는데 한쪽 귀퉁이에는 당시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한테 받은 낡고 색이 바랜 붉은색 서류가게함이 그대로 놓여 있다.

존슨대통령의 기념관은 모두 19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처럼 방마다 특색있게 꾸며져 있다. 그리고 이곳에는 10만원의 장서와 3천4백만점의 문서를 소장하고 있어 여기를 찾는 사람은 미국현대사를 공부하는 연구원, 학자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포함하여 연간 40만명이 다녀가고 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의 자료를 완전히 공개한다는 정부의 봉사정

신을 국민들이 화답하고 있다는데 기인하지만 방문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세심한데까지 배려하는데 더 큰 영향이 있는 듯 하다. 이를테면 기념관 안에는 부인 버드(Lady Bird Johnson)여사의 소극장도 있어서 그녀의 전기(biography) 필름도 보여주고 있으며, 백악관에서 여사가 사용하던 가구들과 식기, 수저, 컵 등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버튼만 누르면 대통령의 유머(The Humor of L. B. J.)를 육성녹음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여기를 찾는 이에게 즐거움을 배가시키고 있다.

대통령의 자리는 한시적으로 끝나지만 그의 생애와 재직시 업적을 영원히 기리고 역사의 한 장면을 국민 앞에 그대로 보여주며, 주민들 앞에서 지도자가 도서관을 통하여 몸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고안한 것이 바로 대통령 기념도서관이다. 나는 찬탄과 부러움 속에서 이 기념도서관을 쳐다보면서 또다른 도서관을 살피기로 했다.

미국 대통령 기념도서관의 역사를 보면 1940년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도서관이 시초이다. 그후 1952년 후버대통령 이후부터는 거의 전통(傳統)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미국내에는 모두 12개가 설립되어 있다. 이들 도서관은 일단 건립된 이후에는 모두 연방정부의 국립문서보존소(NARA: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가 운영을 맡으며, 예외로 닉슨(Richard Nixon)도서관과 헤이스(R. B. Hayes)도서관은 사설로 운영된다.

대통령도서관의 건립지는 대개 대통령의 출생지나 그와 연고가 깊은 정치활동지 내지 고향마을 또는 출신대학 캠퍼스내에 세운다. 레이건(Ronald Reagan)도서관의 경우 캘리포니아 작은 도시 시미밸리(Simi Valley)는 그의 자택이 있는 벨에어와 그의 목장이 있는 휴양지 산타바바라 중간 지점에 있으며 그가 “사후에는 이곳 언덕에 묻어달라”고 주문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 장소를 선택한다.

이와같이 역대 대통령도서관의 건립연대와 위치를 보면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도서관은 1940년 뉴욕 하이드파크에, 후버(Herbert Hoover)는 1952년 아이오와 웨스트브렌치에, 트루만은(Harry S. Truman) 1957년 미주리 인디펜덴스에,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는 1962년 캔사스 에빌린에, 케네디는(John F. Kennedy)는 1979년 보스턴 컬럼비아 포인트에, 포드(Gerald R. Ford)는 1981년 앤아버 미시간대학 캠퍼스에, 카터(Jimmy Carter)는 1986년 조지아 아틀란타에, 닉슨(Richard Nixon)은 1990년 캘리포니아 요바린다에 건립하였고, 지난 11월 6일 개관된 부시도서관은 텍사스 칼리지 스테이션의 텍사스 A&M 대학에서 성대히 개관되었다. (Public Libraries, “The Presidential Libraries; A Growing Resource”, 1997년 3·4월호에 위 도서관에 대한 주소, 전화번호, e-mail 등 자세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대통령도서관은 ‘대통령 도서관법’ (Presidential Libraries Act of 1955)에 근거하며, 그후 ‘대통령 기록물법’ (Presidential Records Act of 1978)과 1968년 개정된 ‘기증품 제한기준’에 따라 소장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가 백악관을 나서는 순간 그의 자료는 모두 연방정부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청와대 안에는 <통치사료 자료실>이 있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대통령의 말’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전두환 전대통령은 공사석을 막론하고 담당자를 배석시켜 기록을 남겼으며 노태우 전대

통령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배석시켰다. 김영삼 대통령은 공보비서실에 있던 담당업무를 비서실장실로 옮겨 업무를 체계화하는 중이다.(시사저널, “통치사료 체 구실 찾는다”, 1993. 11. 4 참조).

지금도 김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업무를 조직화하여 보관한다 하더라도 이 자료가 청와대 안에서 존속하는 한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데는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 그리고 자료의 내용에서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에 관한 자료 중 청와대와 정부기록보존소에 남겨진 자료는 대부분 지극히 공식적인 문서와 기록 뿐이다. 두사람이 퇴임하면서 중요한 개인 기록물들을 모두 연희동 사저로 가져갔기 때문이다.

이승만 초대대통령만 하여도 서울 이화장(梨花莊)에는 2만여점의 유품과 2백 30여점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는데 1만여장의 사진이 아직 정리나 목록조차 작성되지 않고 있다(조선일보, “기자수첩”, 방치된 사료들, 1988. 5. 22 참조).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자료는 사물화(私物化)되어 결국 국민앞에서 사라질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는 때가 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야 한다. 박정희 전대통령의 자료도 한곳에 집결시켜야 하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료도 모두 거두어 들여 국가의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수집한 자료는 ‘청와대’나 ‘정부기록 보존소’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그의 출생지 또는 그가 활동한 지역이나 대학에 설치하여 그곳에서 관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들이 비록 선정(善政)을 못하고 악정(惡政)을 베풀었다 해도 그가 끼친 활동은 증거물로서 역사가 심판하겠끔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 카터만 해도 대통령재임시 보다 퇴임후의 활동과 도서관의 건립으로 그의 평가가 달라지고 있지 않는가. 김영삼 대통령도 앞으로 퇴임후 활동과 그의 고향 또는 정치연고지에 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 의지 여부가 그의 통치이력을 검증하는 마지막 작업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어리석게 ‘전임대통령을 위한 특별기관’이나 ‘日海財團’같은 거대기구를 구상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친숙할 수 있는 ‘그의 도서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提案)한다.

어쨌든, 대통령 관련자료는 개인의 자료가 아니므로 사가(私家)에서 사장(死藏)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퇴임과 동시 국가에 귀속시키고 이러한 자료를 중심으로 도서관을 만들어 거기에 소장토록 해야 한다.

지금 그 일을 김대통령이 먼저 실천하도록 온 국민의 관심과 의지를 표명할 때이다. 역사의 평가는 기억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으로 말하는 것이니까.

이 기고문의 내용은 1997년 11월 13일 부산방송(PSB TV)취재기사로써 방영된 일이 있고, <시사저널> 제422호(97. 11. 27)에서 “YS·박정희기념도서관을 만들자”라는 기사로 소개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원문에 비하여 방송의 한계성과 대중지로서 글의 제목 등에서 사람이 한정되어 있고 내용이 축약되어 필장의 진의가 잘못 전달된 듯 하다. 뿐만 아니라 전문인의 제언이 불충분하여 우리 도서관인의 참 뜻과 정서를 공유코자 본지를 통하여 전문을 수록하게 된 것이다. ■ 필자주